

大學院教育課程의 改善

安 圭 哲
(全南大 教育學科 副教授)

70年代의 후반부터 대학원교육의 강화를 위한 諸施策이 도입되고 “大學院中心大學”이 云謂되면서 大學院評價委員會가 결성되고 활동한 일도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대학원의 운영실태의 조사와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아직도 만족할 만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I. 序

대학은 成立發展史의으로 보나 遂行할 機能의 屬性으로 보나 그 운영은 自律性을 基本前提로 함이 당연한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教育課程運營의 最終權威는 學科長 또는 個個 教授에게 있다는 주장은 異論의 여지가 없을 만큼 강력하다. 大學院은 教育位階上으로 最上部에 위치하여 그 자율성은 특히 존중됨이 당연하며 대학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전적으로 專攻學科의 學問의 特性에 따라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인 學者·教授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事案이며 어떠한 一般論의 提示도 때로는 劃一化, 領域侵奪의 염려로서 警戒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近年에 활발하게 論議·實施中에 있는 대학 교육의 개혁은 비록 그 개혁의 主안점을 학부교육에 둔 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대학원교육에 파급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예컨대 어떤 專攻

學科에서 閉鎖的인 교육과정 운영을 시정코자 할 경우에는 學科間의 連繫와 協同 또는 相互理解를 필요로 하게 되는 만큼 대학원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一般的 原則으로서 專攻學科別 割據主義 이상의 어떤 原則을 想定하지 않을 수 없음이 또한 사실이다.

1973년부터 先導實驗大學의 운영단계를 거쳐 이제 일반화하기에 이른 대학개혁은 졸업학점의 인하,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권장, 능력별 졸업 등이 그 내용으로서 한마디로 교육과정의 개혁이 주된 것이어서 대학교육의 연장으로서의 대학원교육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課題를 제시하게 됨은 지극히 당연하다. 70년대의 후반부터 대학원교육의 강화를 위한 諸施策이 도입되고 “大學院中心大學”이 云謂되면서 大學院評價委員會가 결성되고 활동한 일도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대학원의 운영실태의 조사와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지우기

는 어렵다. 따라서 大學院 專攻學科의 自律性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當爲性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대학원 教育課程의 編成과 運營上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對處方案을 提案함으로써 관심 있는 사람의 논의의 자료가 삼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학원의 임무수행상 유익한 방향의 시사를 얻고자 한다.

II. 大學院教育課程의 問題

대학원교육의 당면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리·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教科課程의 編成·運營上의 당면문제로서 조속히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점에 주안점을 두어 제시한다.

1. 教育內容의 重複

교육내용의 중복현상은 教育水準間(學校級別) 및 學問領域 相互間의 관련성을 고려함이 불충분한 데서 기인하여 高等學校와 大學間, 大學과 大學院間, 碩士課程과 博士課程間, 大學 또는 大學院內學科(專攻)間, 學科(專攻)內 教科目間에 있는 현상이다. 교육내용의 중복은 教育課程의 지나친 細分化와도 有關하며 세분화된 教科目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1~2인의 교수가 담당하게 되어 授業의 活力減退, 教授의 負擔過重, 教育費의 過多支出, 教育財政의 浪費를 초래하고 教育의 質의 향상에 도 逆作用을 하게 된다.

2. 學問研究活動의 閉鎖性

학문간의 相互關聯性은 학문의 存在 및 發展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나 大學·大學院의 學科間 學問研究活動의 閉鎖的 風土가 지적된 지는 오래이나 그 是正은 더디다.

教育課程의 지나친 學科中心運營은 결과적으로 科所屬教授爲主의 學科目을 設定하게 되고 (faculty-oriented curriculum), 학과에서 개설하는 모든 교과목은 실질적으로(명목상 교과구분은 어떻든 간에) 학생에게는 必須科目으로 되어 學習의 自由의 제약요인으로 되고, 學問領域間 對話와 交流를 阻害하여 教授研究의 幅마저 제한됨으로써 종합대학교가 지닌 귀중한 장점마저

활용되지 못하게 된다.

3. 教授不足

대학의 교수부족은 年來의 문제점으로서 法定定員이나 豫算定員대로도 充員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實驗大學의 推進以來 실험대학의 실적 보고서상으로는 年年이 敎員確保實績이 集計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學生增員幅을 상회하는 教授增員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教授充員率 低下는 지금도 중대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82년 10월에 當局이 밝힌 資料를 인용한 報導에 따르면 전국의 98개 大學에 설치된 大學院數는 169個(一般 67, 專門 102)이며, 학생정원은 63,326명인데 專任敎員이 단 1명도 없는 대학원이 102이고, 전국의 대학교수 정원은 22,729명이나 10월말 현재의 확보률은 68.2%로서 15,502명이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정원의 반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40%도 안 되는 확보률을 보인 대학도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大學教育의 不實化” “大學教育의 赤信號”를 염려케 하는 것이다. (中央日報 1982.10.28) (朝鮮日報 1982.10.29)

교수부족과 관련하여 대학원 전임교원의 확보를 주장하는 논의가 많으나 學科別(系列이나 單科大學別) 教授의 定員을 計上함에 있어 학부의 전공 및 교양과목과 일반 및 전문대학원 교과목의 학점수 또는 시간수를 참작 반영하면 충분하며 굳이 학부전임, 대학원전임, 전문대학원전임의 구별을 들 이유는 없다고 본다.

4. 教授負擔의 過重

大學의 教授不足, 教授定員의 充員不實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상 지장이 많을 것으로 염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요인은 過重한 教授의 負擔이다.

교수의 과중한 수업부담은 수업시간수와 담당 과목수의 양면에 같이 해당된다. 많은 대학전임 교원이 講義時間의 원칙적인 제한선인 16時間을 초과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책임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科目負擔으로는 한 학기에 대학원 강의만을 4講座이상 담당한 교수도 있다는 조사보고도 있다.

대학원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과 교수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학생의, 동일인교수로부터의 受講科目數를 증대케 할 것이 예견되거나와 극단적인 경우 한 學生이 대학원에서 취득해야 할 碩博士課程 總取得學點의 3분의 2 이상을 同一人の 教授에게서 취득한 충격적인 事例까지 있다고 한다. 同一教授로부터의 集中受講은 教育의 一貫性이나 專攻의 深化를 長點으로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르나 學生의 創意性 發現上 有害하고 同種繁殖的, 動脈硬化症의 現象으로 평가하여 閉鎖的 學閥의 弊風으로 봄이 보다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교수의 負擔過重은 不實한 教科運營(授業·講義)의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5. 財政의 逼迫

高價의 教育이 반드시 좋은 教育일 수는 없으나 좋은 教育은 값싸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거나 특히 고등교육은 방대한 財政的 基礎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추진중인 각부면의 고등교육 개혁은 그 성과를 좌우할 중대요인이 財政支援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제부면에 투여할 財政要因은 많으나 현황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大學院教育은 學部에 附屬 또는 寄生하는 상태라는 評이 있으며 一般大學院은 장식품으로 專門特殊大學院은 收入源으로 설치되었다는 혹평까지도 없지 않다.

대학원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한 選擇機會의 不足, 教授不足 및 教授負擔過重으로 인한 不實한 講義, 教育財政의 逼迫으로 인한 教育環境의 不備, 學部課程과 또는 履修教科目間의 教育內容重複으로 인한 活力의 減退 등 諸要因의 복합적인 작용은 大學院生으로 하여금 大學院 講義에 不滿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다.

6. 學生不在

대학원의 在籍學生數는 年年이 增加하여 196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5年餘에 10倍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이러한 증가경향은 전체 고등교육인구의 증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 학생의 상당수는 職場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원에 籍을 두고 있으므로 대학원의 授業時間表는 週別 1~2日만 出席하여도 되도록 偏重作

成하는 便法을 쓰고 있어 결국 학생은 “副業”으로 學籍을 가지고 있다는 評까지 있으며 大學院에 학생이 없다고까지 지적하는 것이다.

7. 教育과 研究의 相衝

전래적으로 대학의 任務(mission) 또는 기능(function)은 教育·研究·社會奉仕로 이해되어 오고 있으며 이들 諸任務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研究를 통해 획득된 知識을 傳授(教育)하며, 그 지식의 應用 또는 卒業生의 輩出을 통해서 社會에 奉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一見 相互 긴밀히 关联된 듯이 보이는 일련의 大學機能은 Perkins, J.A.의 지적과 같이 기실 相衝하는 任務(conflicting missions)로서 메로는 적지 않게 문제가 된다.

대학임무 가운데 교육과 연구 사이의 갈등면을 보면 교육을 위해서는 講義室을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긴밀한 접촉을 요하나 연구를 위해서는 교수는 외부와 두절된 연구실이나 실험실에 蟄居하여 사람(people)보다는 착상(idea)을 중시하게 되고 교수의 업적은 교육받은 학생의 성장·발달로서보다는 소속학회에 따라서 대학 밖에서의 평가에 좌우된다. 교육에 전념하자면 연구에 지장이 있고 연구추진에 열중하자면 학생 교육상 애로를 겪는 일은 대부분 대학교원이 지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Ⅲ. 教育課程 運營改善 提案

현재 대학원은 外的으로는 洽足한 財政支援이 랄 수 없는 조건 아래 定員대로 充員되지 못한 教授가 過重한 負擔을 지고 있으며, 內的으로는 重複된 教育內容, 閉鎖的 教育課程을 編成·運營하며 大部分 full time이 아닌 學生들의 便宜를 고려하여 갖가지 便法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改善·對處方案의 講究 施行이 重大한 課題로 되고 있다. 이하 대학원 각 전공학과와 특수성과 전공학과 및 교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전제 아래 關係·關心人士의 논의의 자료로 삼게 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한다.

1. 開放性的 擴大

대학원 운영의 開放性 增大와 協同體制的 擴大는 여러 수준에서 논의될 수가 있다. 즉, 대학원내 專攻·學科間, 대학교내의 大學院間(일반 대학원과 전문특수대학원간), 大學校間的 協동체제 등 세 가지 차원을 想定할 수 있다. 대학교간 협동체제의 강화는 상호 學點의 認定, 受講의 認定, 巡回交通便 提供, 기타 共同出捐에 의한 事業 등이 그 例가 될 것이고, 대학교내 大學院間 連繫를 위한 機構·運營·措置도 다각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우선 대학원내의 專攻間的 開放이 중요하다.

대학원 各專攻(學科)間 連繫方案中 關聯專攻(學科) 科目의 專攻認定幅을 넓히며 自體內 開設科目 必須化를 減少緩和하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운영을 고치는 일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에게는 學習의 自由, 選擇의 機會를 보장하고 교수에게는 학문영역간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여 대학원의 學究的 雰圍氣昂揚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적절한 운영은 전공과목의 개설을 감소하여 教育負擔의 輕減과 財政支出의 輕減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대학원과정에 있어 知的 研究活動의 單位는 學問의 小分科(subdiscipline)일 것이다. 현재 대학교수 구성상 거개의 小分科專攻의 교수는 1~2인에 불과하며 교수의 이동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全無하게 되는 일이 없지도 않아서 결국은 小分科에의 研究深化도 대학교간(時間講義) 또는 專攻學科間(專攻選擇으로의 認定) 協同의 強化로 기대함이 좋을 것이다.

2. 教育內容의 重複除去

실험대학을 통한 대학개혁은 卒業學點을 引下하고 履修教科目的 學點은 원칙적으로 3학점으로 하여 教科目的 지나친 細分化和 教育內容의 重複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 學部와 碩士課程間, 碩士課程과 博士課程間, 專攻內 教科目間에는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적지 않으므로 教科目的 教授要目 分析을 통한 調整으로써 教育上의 浪費와 非效率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教科別 教育內容의 分析檢討는 적어도 每 5年마다

週期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受講規模의 調整

학문의 특수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대학원 교과운영을 不實하게 할 염려가 있는 要因의 하나는 講座當 受講人員의 過少現象이다.

개강과목당 수강인원이 1~2명으로 교과운영을 하는 일은 教育의 效率性, 教授와 學生 兩便에 주는 心理的 負擔, 財政支出 등 여러 면에 비추어 재고되어야 한다. 受講規模의 增員調整은 專攻選擇 또는 副專攻의 擴大에 의한 他專攻學科와의 共同設講이나 隔年設講 등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教育效果의 增進, 經費의 減縮은 물론 教授負擔의 減少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授業의 強化

각급학교의 교육에 있어 授業의 尊嚴性에 대한 確乎한 인식은 教授法의 技術的 改善에 앞서야 한다. 대학원 수업에 있어 1~2인뿐인 수강인원,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학생의 형편 등이 원인이 되어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便法으로만 운영한 것은 아닌지 늘 반성할 만하다. 대학원 수업을 강화할 각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教育·研究의 統合試圖

대학원교육은 다른 단계의 교육에서보다 教育과 研究의 相補的 關係를 유지함에 이르러 수 있다. 教育때문에 研究에 지장이 있거나 研究로 인하여 教育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아니할 教授法과 研究計劃의 수립이 요망되며 대학의 行政과 機講上 대학원교육과 연구기능 담당업무를 연계시키는 데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6. 敎職의 素養의 強調

대학원교육의 주요기능의 하나는 教授要員의 養成·供給일 것임은 외국이나 우리나라 같다. 따라서 대학원에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학술이론과 연구능력을 갖추게 함과 동시에 적정수준의 教授能力 및 教育的 素養을 갖게 함이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7. 教科目名(course title)의 調整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과목명은 일반적으로 깊은 검토의 흔적이 보이지 않거나 具體性的의 결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論」, 「……Ⅰ」, 「……Ⅱ」, 「……研究」, 「……持講」, 「……特論」, 「……分析」, 「……(諸)問題」, 「……問題論」, 「……講讀」, 「……演習」, 「……세미나」 등의 명칭이 “특별한 의미”가 없이 마구 쓰이는 경향이 있는 바, 보다 신중한 배려를 거쳐 교육내용을 具體化하는 방향으로 보조를 같이 하여 修正함이 좋겠다.

Ⅳ. 結

大學院은 高等教育機關의 急速한 팽창에 따라 需要가 加增하는 大學敎員의 養成, 社會 발전을 위한 새로운 政策·戰略·技術의 開發을 主導해 나갈 廣의적 高급인력의 확보 등 막중한 任務(機能) 遂行이 기대되는 가운데 전체 高等교육 기관의 增加幅을 上廻하여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교육이 그에 향하는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대학원 內의에 많은 문제 가 있다. 洽足하지 못한 行·財政的 支援아래 定員대로 充員되지 못한 敎授가 過重한 負擔을 안고 있으며, 閉鎖的 敎育課程의 運營으로 연구와 학습의 幅을 제한하고 學生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채 중복되는 敎育내용을 이수시키며, 갖가지 便

法的 運營으로 수업의 존엄성은 손상을 입고 있어 大學院敎育의 質的 高揚을 위하여 餘려를 질 게하는 바 많다.

敎育과정 運營상 전공학과간의 벽을 완화·제 기하는 開放性的의 擴大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運營상 彈力性和 편성상 協同性을 살리는 일이 요청된다. 小規模 受講規模는 增員調整하여 敎育效果와 財政效率를 높리며 學業缺損을 조정할 餘려가 있는 便法運營을 억제할 需要가 있고 重複되는 敎育內容의 삭감을 위한 協同的 分析·檢討가 주기적으로 시행됨이 좋겠다. 대학원에 있어서의 敎育과 研究를 統合할 方案의 講究가 필요하며, 대학원의 敎수요원 공급기능을 증시하여 學生에게 敎職的 素養을 具備하게 하는 일도 고려할 직하다. 무질서하기까지 한 코스타이틀 에 대하여도 재고할 시기가 된 듯하다.

대학원의 敎育과정 편성과 運營은 劃一化를 경계해야 할 것이므로 專攻別 自律性和 自發性을 보장하는 가운데 그 發展的 模型定立과 採擇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원 運營개선을 위하여 강력하게 云謂되는 開放體制의 導入에는 원칙적 合意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相異한 專攻間 또는 學年間的 連繫에 따를지도 모르는 異質感의 拂拭으로부터 時間表 編成 등 事務的 技術的 次元의 問題에 이르기까지 克服해야 할 難題는 적지 않을 것이나 改善의 方向을 바르게 設定하여 持續的인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